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채권전략 안내하



8 월 금통위 Review: 최종금리 3.50% 상향

Check Point

- 한국은행, 8 월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 황건일 위원 동결 소수의견 제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근원 물가 전망치 또한 올해와 내년 모두 2.5%를 제시. 높은 성장과 물가를 고려해 관례에서 벗어난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는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라고 제시.
- 10 월은 동결 예상. 비둘기적인 통방문과 점도표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 성격의 연속 인상 후 그 영향을 10 월엔 지켜보며 동결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당사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고려 최종금리 수준을 3.50%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 11 월 추가 한차례 인상 후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상하는 경로로 예상. 단기적으로는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단기구간 중심의 강세가 예상되나, 예산안으로 인한 공급 부담과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 대외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면 강세폭은 제한적일 전망. 연말 국고 3년 3.90% 수준 전망은 유지.

한국은행은 8 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했으며, 황건일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7 월에 이어 두 회의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불과 두 달 만에 누적 50bp 의 긴축을 단행했다.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이 분기당 한 차례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백투백 인상이다. 한국은행은 경기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선제적 대응'으로 설명했다.

이번 연속 인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의 동반 상향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전망치를 2.9%로 대폭 높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제시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근원물가가 내년까지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 측 물가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금리가 3.00%까지 인상됐지만 근원물가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실질 정책금리는 약 0.5%에 그쳐, 성장률 전망에 비해 긴축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연속 인상 결정에 비해 통방문과 점도표 등은 비둘기적이었다. 통방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점도표를 통해 향후 6 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중간값이 3.25% 수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2 월까지 앞으로 4 회의 회의가 남은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만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보냄으로써 앞으로는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며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금리 인상 결정 직후에는 상승 압력을 보였지만, 소수의견 등장과 이와 같은 점도표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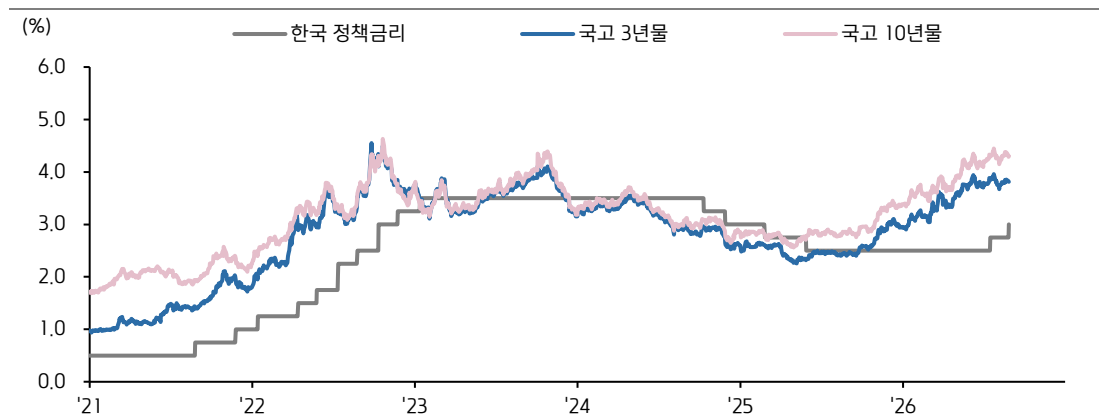
당사는 한국은행은 10 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두 차례 연속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임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을 선제적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연속 인상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는 정책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황건일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점 역시 금통위 내부에서 추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10 월에는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한 뒤 성장세와 근원물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최종금리 전망은 기존(3.25%)보다 높은 3.50%로 상향 조정한다. 기본 시나리오 10월 동결 이후 1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추가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려 3.50%에 도달하는 경로로 수정한다. 올해 3.3%에 이어 내년에도 2.9%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근원물가가 2.5%에 머문다면, 두 차례 연속 인상 이후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인상 사이클 자체를 조기에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2.9% 성장 실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 속도는 약화될 수 있겠으나, 인상 기조 이후 동결 기조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환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10 월 추가 인상 부담이 완화되면서 국고채는 단기구간을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금리 전망이 3.50%로 높아진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고채 공급 부담, 해외 장기금리와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강세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 시차를 반영한 단기물 강세에 비해 장기물은 재정과 수급 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수익률곡선이 다소 가팔라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말 국고채 3 년물 금리 전망은 기존 3.90%를 유지하며, 단기적인 금리 하락을 추세적인 강세 전환보다는 금리 상승의 속도 조절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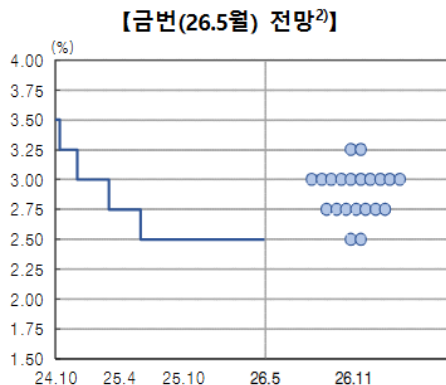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통화정책방향론 비교

	2026년 7월 통화정책방향	2026년 8월 통화정책방향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 하기로 하였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 및 중동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각각 2.6%, 2.1%)를 큰 폭 상회하는 3.3% 및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 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소비자물가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를 보면,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과 같은 2.7% 및 2.3%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2.4%, 2.3%)를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 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 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 미 국제금리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하였다가 일부 반등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 전이 효과,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정책결정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6명은 찬성하였으며,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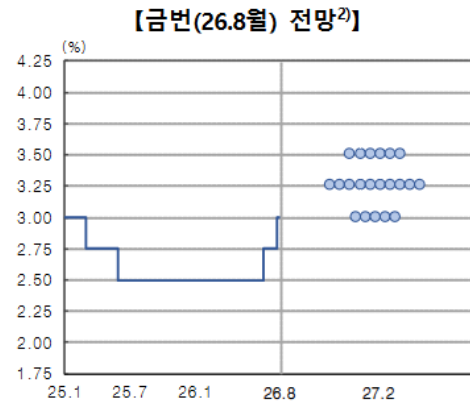
한국은행 2026년 5월 점도표



주: 2) 2026.5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3.25% 2개, 3.00% 10개, 2.75% 7개, 2.50% 2개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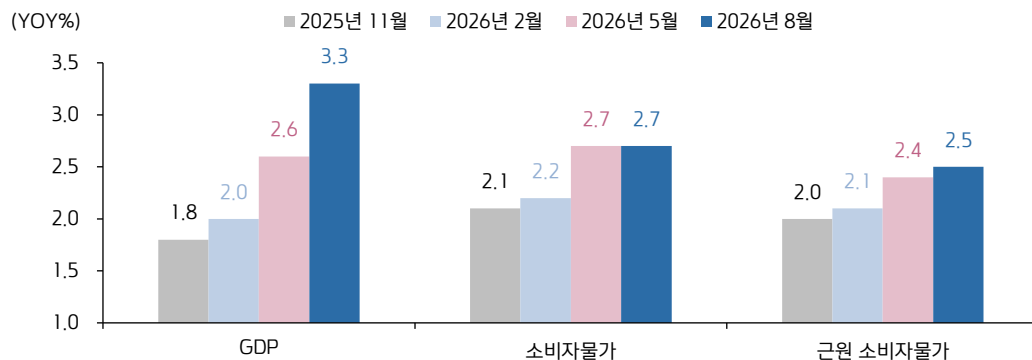
한국은행 2026년 8월 점도표



주: 2) 2026.8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3.50% 6개, 3.25% 10개, 3.00%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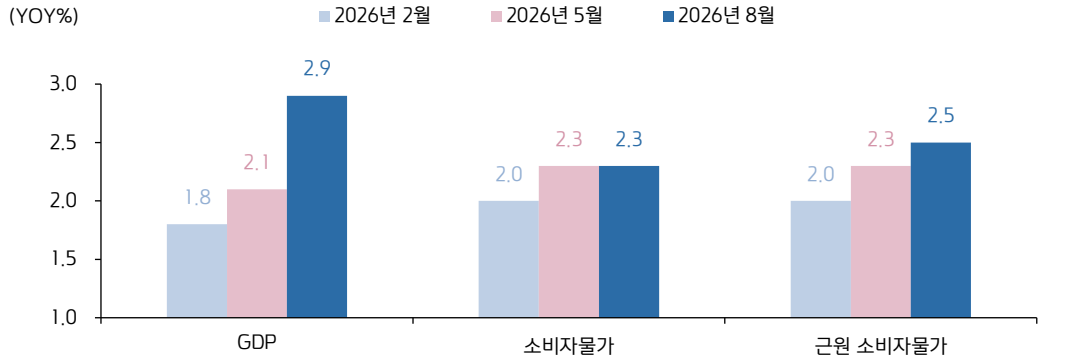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2026년 경제 전망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2027년 경제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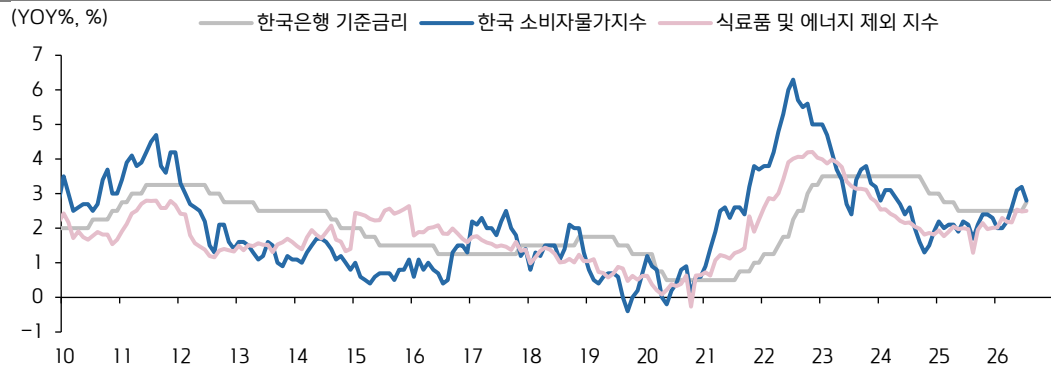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리

질문	응답
물가에 대한 판단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했음. 소득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해지고 장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 전망 설명회에서도 들으시겠지만 금년 성장 전망은 3.3%, 내년은 2.9%로 5월 전망에 비해 상당폭 상향 조정됨. 이 과정에서 근원물가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기초적인 수요 압력을 유념해야 하는데 기초적인 물가 오름세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표는 근원물가임. 변동성이 심한 것을 제외해서 보면, 5월 전망에 비해 상향 조정했음. 각각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앞으로 있을 소득 여건 개선에서의 성장 강세와 물가 오름세의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함의하는 수치.
연속 인상의 이유	왜 연속으로 올렸는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함. 선제적인 대응이라함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조기 대응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일정한 금리 인상 폭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당기면서 효과를 얻겠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선제 대응이 성장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음. 늦게 대응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비용이 커질 것을 감안해 호미로 막기로 결정함.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있음. 논의에서도 반영을 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음.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용을 낮춘다는 것. 금중대 금리 동결을 통해 대응 가능.
환율	환율 측면에서도 환율 안정에 기여. 선제적인 대응이 적당했다고 봄. 환율과 관련해서는 안정이 됐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그럴 경우 19% 수준의 수입물가 상승률도 상쇄될 것이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
소수의견과 향후 정책 방향	소수의견이 이번에 한 분 등장.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음.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깊은 논의를 통해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 전술적인 차이.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시장에서는 8월 인상하느냐, 10월 인상하느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국은행은 조기 대응을 통해 비용을 낮추려고 함. 환율도 추가적으로 안정이 됐고, 금리 또한 하락.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봄. 점도표에 대한 설명 또한 중간치가 3.25%에 있음. 지금보다 0.25%p 높고, 점도표를 제시할 때 6개월 시계를 두고 발표하는데, 앞으로의 통화정책 기조는 점도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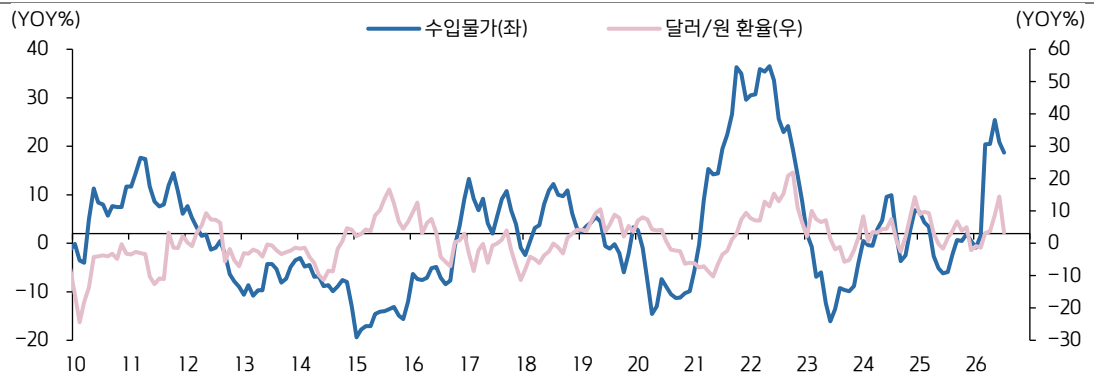
점도표	6 개월 시계에서 3.25%가 중간치로 나옴. 앞으로 정책 방향 회의가 4 번이 있는데, 중간치가 3.25%라는 것은 한번 더 인상한다는 것.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 그 이유는 연거푸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함.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금융안정은 별도의 문제이나, 주의깊게 챙길 것
확장 재정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과 통화의 엇박자는 아닌지	2 분기 국민 총소득 GDI 가 15.6%나 성장. 유례없는 수치. 전국민 계정으로 나오는 것. 정부 계정도 있음. 정부 세수가 소득 개선 추세에 크게 혜택을 받고 있음.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 이번에는 속보치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민 소득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 수정이 나올 수 있음. 명목 GDP 도 같이 발표될 예정. 모든 부채 비율이나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재정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되냐는 질문이 있는데, 재정 지출의 형태나 규모, 재정지출의 용도에 따라 답이 달라짐. 원칙적으로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이 된다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엇박자가 안될 수도 있음. 앞으로 나올 규모나 용도나 지출 속도 등을 보면서 알 수 있음. 원칙은 비교적 명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도 갈 수 있음.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환율이 2 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 했음. 상당히 안정됐다고 봄. 무엇보다 환율의 수준보다는 환율의 예측성이 중요함. 환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계획이 가능. 레벨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봄.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율은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입물가 증가율을 볼 때 좀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갈 수 있다고 생각. 통화제도의 신뢰의 중심점이 될 것.
앞으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나 여건은?	10 월 통방 전에는 인플레이션을 두 번 관측 가능. 물가지표가 중요함. 2 분기 GDP 잠정치가 9 월 초 발표될 예정. 심리지수, 실시간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 강한 성장세와 소득 여건 개선이 반영이 됨. 모든 경제주체로 흘러가는 채널이 있지만 아직 더딘 상황. 가계, 취약계층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가를 볼 것.
정책 표현 변화와 매회의 live 회의인지?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live 임. 경제와 금융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 왜 점도표 중간값이 3.25%냐는 질문에는 연거푸 인상함으로써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음.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음.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들에게 여파를 점검하고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음. 문구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가 있음. 이번에도 점도표를 운영하면서 세번째 점도표를 제시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도 중요하고, 문구를 세부적으로 뜯어서 낱말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함. 전반적인 의도를 받아주시면은 좀더 효과적인 소통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음. 잭슨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새로운 소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견해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식은 양방향 소통이라고 봄. 중앙은행이 경제를 보고 얻는 정보도 중요함.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음. 전반적인 의도를 전달하고 한은도 시장을 보면서 배워나가겠음.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각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다시 정비하고 있음. 아마 곧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GDP 갭을 볼때 원래 내년에 가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로서 플러스 전환 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봄. 현재 또한 임계치 수준에 있음. 잠재성장률 또한 중립금리에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정할 것.

한국 소비자물가와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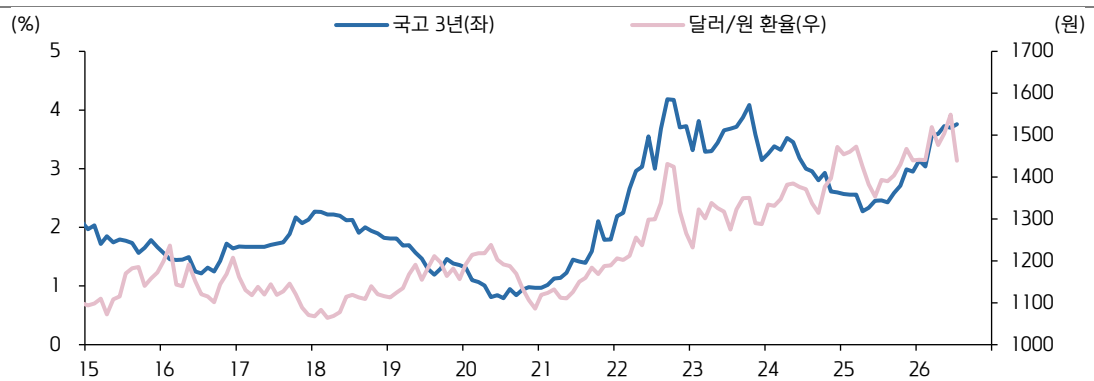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입물가와 환율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고 3년물과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